

최악의 반인권법, '대북전단금지법'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성명서 발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북한에 대한 굴욕적 행위를 비판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 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4일(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발효되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최악의 인권 억압 주민들에게 자유와 평화, 희망의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보내는 전단지들을 형벌로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것은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회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은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인권에 대한 이중적태도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 법이 북한 감정은 국경위원장의 동생의 이름을 딴 일명 '김영재 하명법'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 김영재가 남측의 전단지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 합의를 깨겠다고 협박을 놓고, 개성

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전격적으로 폭파한 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표 발의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국회에서 "북한 존엄을 비방하는 전단지들을 뿌릴 경우 북한이 정사포로 공격해 올 것"이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그 빌미를 남측이 제공했다고 하는 그들의 억측 주장과 너무나 똑같은 논리가 아닌가.

송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 또한 대단히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견해라고 판단해 즉각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

먼저 "보수세력이 착각" 운운한 것에 대해 착각하는 것은 본인이지 보수세력이 아닌 을 밝힌다.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세력이 북

한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3대 세습 독재정권을 이성적이라고 착각할 보수단체는 없다.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켰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비난하는 발언도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북한정권이 저지른 짓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기의 고모부를 박격포로 쏘 죽이고, 바다에 표류중인 우리 공무원을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행위 앞에서 "보수세력이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한다"고 운운하며, 오히려 북한을 둔둔하고 보수세력을 비방하는 발언을 어찌 할 수 있는가.

또한 북한이 과거에도 대북전단지들 분배를 남측에 정사포를 쏘 사실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그동안의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모두 다 대북 전단지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세력이 북

원로목사총연, 작은교회 회복프로젝트

1천개 작은교회에 방역시스템 제공 목표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코로나19로 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작은교회 살리기에 나섰다. 한국교회 지역 생태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작은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곧 한국교회의 몰락이라는 우려에서다.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지난해 12월 16일(수)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코로나 아웃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에 성장 품버린 작은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소 1,000개의 작은교회에 코로나 방역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1구와 10만원 기준으로 10구와만 한 교회에 자동체온기와 방역기, 살균기, 소독수와 마스크 등 방역시스템을 완벽히 할 수 있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신석목 목사(원로목사총연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한국교회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30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던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준다."라며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위기를 넘어서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의 선진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이 다시 한번 발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교회는 우리 사회의 골목 곳곳으로 뻗어있는 셋강 같은 존재로 우리 100만 한국교회와 중요한 기반이다"라면서 "작은교회를 살리는 일은 한국교회 전체가 나서야 할 일이다. 우리 원로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이겠다. 함께해 달라.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 "코로나가 담이 되어 교회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 코로나가 짐이 되어 교회를 짓누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교회들을 굳게 하고 계신다"라며 "코로나는 담이 아니라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담이 아니다. 담이 아니라 짐을 풀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제16회 정기총회 성료, 강용희 목사 대표회장에

예총연, 사회와 국민을 위한 치유의 역할을 할 것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방정웅 목사)이하 예총연은 지난해 12월 10일(목) 서울 광화문 일품진진수리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연임을 결의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총회원들은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

에 처한 사회와 국민을 향해 예총연이 위로와 치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진하는 예총연이 될 것을 다짐했다.

남윤국 목사(기교협 회장)의 사회로 드린 이날 예배는 강진명 목사(신학협 회장)의 기도

사장 유영섭 목사의 마 20:1-7 말씀을 본문으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총연에서 일하려면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됐다'는 자만을 내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 회무처리는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사회로 지난 회기에 대한 주요 사업 및 행사, 행정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이어 인사위원회(위원장 유영섭 목사)가 신 임원 조각에 나서,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연임과 상임회장 및 각 협의회 회장 등의 임원 인선을 완료했다.

CTS,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택트 특집 생방송

대취타부터 대합창까지! 뜨거운 축제의 무대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하고 CTS기독교 TV가 주관하며, 서울시와 백석예술대학교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방송 사상 최초의 비대면 퍼레이드로 지난해 12월 19일(토) 생방송으로 방송된 <2020 코리아 퍼레이드>를 시청자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26일부터 31일까지 앙코르 방송했다. 먼저 26일(토) 오후 5시부터 1~3부까지 전체 방송되고, 28일부터 30일까지 밤 11시에는 1부에서 3부가 각각 나뉘어 방송됐다. 그리고 31일 밤 9시 30분에 다시 1~3부 연속으로 방송되었다.

'사랑과 생명의 기쁨, 하나 뭉쳐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출발한 퍼레이드

는 전기질, 최윤영 (1, 2부), 최선규, 조항기 씨(3부)가 진행했다. 실시간 랜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현지인들과 한인 동포들을 연결하며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는 이번 퍼레이드는 세계적인 대형 퍼포먼스들이 함께 했다. 먼저 조선시대 왕의 행차 시 가장 선두에서 행진하던 대취타의 행진으로 시작한 무대를 시작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오픈 무대를 장식한 '저스트워크', 세계 합창올림픽 금메달 2관왕의 '하모니이즈', 대한민국의 대표적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의 격파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한

가장력의 소유자 '쇼' 등이 출연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기대하며 위기 때마다 더욱 하나 되어온 대한민국을 기억하려 한다. 특히 IMF의 어려움,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복구에 애썼던 대한민국은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서로 하나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위로해왔다.

<2020 코리아 퍼레이드>에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힘을 함께 이야기하며, 특히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여성 독립운동가 오희옥 애국지사(96)의 병상 필담으로 국민들을 응원했다.

세기총 · 서명운동본부-전기총, MOU 맺어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 적극 나선다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조인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 동성에 ·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전만인서명운동본부(본부장 김희선 장로)는 지난해 12월 18일(금) 전라북도 익산에서 전북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철규 목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미국장 최성주 목사가 참석해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해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인사에 나선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황철규 목사는 "오늘 업무협약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에 의미가 깊다"라며 "적극 협력해서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수 없도록 서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황철규 목사(새소망교회), 전계현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동산교회 원로), 상임총무 김재규 목사(향동새로남교회), 리상기 목사(정음시민교회)가, △동성에 · 포괄적차별금지법반대전만인서명운동본부에서는 본부장 김희선 장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사

나사렛대, '콤 칼리지 제1기 수료식'

자율전공선택 계열 1년 과정

나사렛대학교 교총장 김경수는 지난해 12월 14일(월) 오후 5시 경건관 대강당에서 자율전공선택계열 1년 과정 수료식을 온 · 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총장, 김창규 교무처장을 비롯한 콤칼리지 소

속지도교수,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 나사렛대학교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내원 최초 자율전공선택 계열로 학생을 선발하여 4차산업 융 · 복합 교육을 위해 전공 간 벽을 허물고, 2학년 진입 시 학생들

이 원하는 전공을 100%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자율전공선택계열로 입학한 학생들은 1년간 '콤 칼리지'에 소속되어 전공선택에 필요한 △전공탐색과 융복합디자인 △멘토링 프로그램 △맞춤형상담 △특강 및 세미나 △인턴십 전공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전민성 학생(콤칼리지 1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활동을 했을텐데, 아쉽다"며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참여 한 1년은 내 적성과 꿈을 찾아 갈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콤칼리지 제1기로 수료한 학생들은 2학년 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소속된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예수 사랑 전해

참좋은 친구들과 한교섭, 노숙인들 섬겨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여 명에 달했던 지난해 12월 11일(금) '별금' 저녁, 서울역 한 칸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행사가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92년부터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과 숙소를 제공해온 '(사)참좋은 친구들(이사장 신석훈)과 한국교회 선 김운동본부(이하 한교섭)가 함께했다.

한교섭은 2003년부터 17년 동안 그동안 '노숙자 침낭 전달하기'와 '할머니 김장김치 나누기' 등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나눔이 행복한 사람들, 행복소통 행복나눔 시민운동(분부) 등 여러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 왔다.

10년 이상 매년 500여 명의 노숙인들을 섬겨온 이들은, 코로나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섬김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근대화진흥원 이효상 원장, 한국NGO신문 김승동 대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12년간 섬겨온 김명일 목사(상승포교인교회) 등 주요 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자비량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이효상 원장의 사회로 김명일 목사가 기도와 김승동 대표가 인사 후 배식에 나섰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늘어진 줄을 정리하며, 식사에 앞서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50명 미만적으로 나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눴다.

함께하는 사랑밭-원팩, MOU 체결

도움의 손길 기다리는 소외된 이웃 지원

(사)함께하는 사랑밭과 (주)원팩이 지난해 12월 21일(월)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원팩 임성길 대표와 함께하는 사랑밭 국내사업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팩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을 이용 · 거주하는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정기적인 지원으로 소외계층 아동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외계층의 삶을 더 가깝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팩 임성길 대표는 "함께하는 사랑밭과의 의미있는 협약을 맺게 되어 영광이다. 지역 사회공헌 실현을 위해 특히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상임이사 관대일 목사는 "코로나19로 더 힘겨운 나눔을 보내는 소외계층을 위한 원팩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진정성 있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겠다"고 협약 체결 소감을 밝혔다.